



와이즈스톤·에이치시티, 시험인증 맞손

기술 교류·서비스 확대
사이버보안 분야 협업도

국가공인 시험인증 전문 기관 와이즈스톤은 에이치시티와 사이버보안 협업 및 ICT 시험인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협력 △양사 ICT 시험·인증 서비스 이용 고객 상호 우대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서비스 적용 분야 확산 △기술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등이다. 양사는 시험인증 기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험인증 산업은 표준과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24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의 약 6%인 14조5623억원으로



왼쪽부터 김홍기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연구소 센터장,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 허봉재 에이치시티 대표, 김규승 에이치시티 기획조정실장이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했다.

연평균 10.2%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와이즈스톤은 2030년 글로벌 종합 시험인증기관 도약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EU CE 인증에 강제화된 사이버보안 분야와 비정형데이터 품질 분야, 자동차 및 철도 기능 안전 분야로 KOLAS 공인

시험 영역을 확대했다.

에이치시티는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국제시험인증·교정전문기관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통신, 전자파적합성, 안전성 시험 등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ICT 융합 시

장과 배터리·의료·전장 분야는 물론, 국내외 방위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와이즈스톤은 글로벌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이치시티와 기술, 인력, 시험환경, 시장정보 등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봉재 에이치시티 대표는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며 급성장하고 있는 시험인증 산업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이번 협약과 같은 시험인증기관 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험인증산업은 상대적으로 고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급 이공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양사의 협력이 국내 ICT 시험인증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데이터 수집·관리·연계·협업 인젠트, 종합솔루션 보여줄 것”

박재범 대표 “오픈소스 차별화”
모든 서비스에 생성형 AI 강화

“인공지능(AI)·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거대언어 모델(LLM)부터 검색증강생성(RAG)까지 솔루션은 다 나와 있다. 누가 더 많은 경험과 고객의 신뢰 속에 전문성을 발휘하는지가 중요하고 우리는 준비돼 있다.”

박재범 인젠트 대표(사진)는 AI·클라우드 트렌드와 함께 데이터 플랫폼 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회사의 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자신했다. 22일 인젠트가 개최한 ‘ISS(Integrated Solution Summit) 2024’에서는 차별화된 오픈소스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대표의 구상은 올해 ISS 주제 ‘We are One: Data+AI on Cloud’에서도 잘 드러났다. ‘We are One’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장에서 CSP, MSP, SI 및 이외 파트너와의 건강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여기에 데이터, AI, 클라우드를 더해 인젠트가 데이터 수집과 관리, 연계, 협업 등 모든 솔루션을 갖춘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지금이 인젠트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연초에 목표했던 매출과 정량적 이익을 상반기에 초과 달성했으며, AI와 클라우드가 주도하는 IT 시장에 맞춰 아래와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그가 강조하는 혁신은 크게 4가지로 △모든 서비스에 ‘머신러닝 및 생성형 AI 기능 강화’ △PG(PostgreSQL) DBMS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대 △‘애니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으로 빠르고 쉬운 인젠트 데이터플랫폼 서비스 배포 관리 △RAG 플랫폼을 통한 기업 AX 지원으로 정리된다.



특히 PG DBMS 생태계는 오픈소스에 대한 시장 요구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다. 인젠트가 PG 생태계를 위해 구축한 네트워크 오픈소스 DBMS 시장 포트폴리오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픈소스 DBMS 제품인 eXperDB 사례 중 에스에스지닷컴 도입 사례가 널리 알려진 것도 긍정 요인이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도 표준 오픈소스 DBMS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다. 박 대표는 “인젠트는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계열사에 코어뱅크 구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증권사의 주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금융권으로 적극적인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의 IT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각오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DB 영역에 집중해왔던 사업을 기반으로 eXPerDB 데이터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SW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기부 장벽, 키오스크·포토부스로 낮췄다

약자동행, 서울형 R&D

<7>체리

기부금 영수증 폰번호 입력 가능
주민번호 유출 우려 없어 장점

체리는 블록체인 기술로 기부 문화를 이끄는 회사다. 많은 사람이 행복 나눔을 위해 기부하지만 정작 어려운 이웃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체리는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체리’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조성한다.

체리 플랫폼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기부 캠페인들을 소개한다. 기부자들은 체리 플랫폼에서 소개된 캠페인을 활용해 기부를 실천하고 해당 기부금이 어디로 가는지 태백처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사랑의 열매,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단



국내 한 야구장에 설치된 체리 기부 키오스크.

체도 체리 플랫폼과 함께하고 있다.

이수정 체리 대표는 체리 플랫폼 탄생 배경으로 “기부에 대한 대중의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나눔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의도가 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거부감으로 작용했던 기부

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른 기부상품 중개 사업자들이 기부금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삼는 것과 달리 체리는 카드 사용과 통신 수수료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기부 장벽을 허물겠다는 체리의 노력은 최근 기부 키오스크, 기부 포토부스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이어졌다. 관공지 등에서 기부 키오스크와 포토부스를 통해 50원, 100원 등 작은 금액부터 기부를 실천하는 재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려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키오스크 기부는 휴대폰 번호만 넣어도 외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과 스포츠 경기장을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카드·통신 수수료 이외 기기 판매 매출이라는 새로운 수

익원 역할을 하고 있다.

기부 포토부스인 체리포토는 글로벌 K-브랜드 인기와 함께 캐나다 수출 실적이 나오는 등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주요 관광지과 리조트 등을 중심으로 하나둘 설치되고 있다.

체리는 키오스크와 포토부스의 인기가 체리 앱 플랫폼을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해 K-기부 문화의 해외 진출에 본격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대표는 “많은 분이 기부를 통해 사회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부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막상 실천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라며 “기술이 그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믿으며 체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기부에 나서도록 돕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아드반테스트코리아 ‘테스트기술워크숍’ 후원

ADVANTEST®

반도체테스트학회·인하대 주최
칩렛·어드밴스드 패키지 주제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한국반도체 테스트학회 ‘테스트기술워크숍’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워크숍은 전날 수원 영동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와 인하대학교 주최로 열렸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인하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과 함께 행사를 후원했다.

워크숍은 칩렛 및 어드밴스드 패키지 신뢰성 확보 방안을 주요 주제로 열렸다. 칩렛 제조에서 테스트와 신뢰성은 최종 제품 성능과 시장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손호영 SK하이닉스 부사장과 정우식 부사장, 강인수 네패스 연구소장, 임성규 조지아텍 교수가 관련 연구 동향을 발표했다. 업계 연구진과 기업, 학교, 연구소 등 주요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 및 기술 트렌드와 기술적 쟁점들을 공유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 관계자는 “칩렛 및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에서 효과적인 테스트 및 신뢰성 방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기술 연구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학회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포함하는 반도체 테스트와 그 응용을 위해 출범했다. 연구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논문지와 학술지 간행, 국내외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과 학술 교류, 반도체 테스트 분야 교육 및 훈련 사업 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후원사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다국적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기업 아드반테스트 한국 법인이다. 아드반테스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테스터, 핸들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등을 세계 반도체 생산라인 테스트 공정에 공급한다.

한국 본사는 동화아드반테스트로 1986년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보유했다. 1996년 4월 아드반테스트가 단독 출자해 아드반테스트코리아로 사명을 바꿨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청소년 24만명 혜택

사업 중간 성과 발표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4만여 청소년이 학습 혜택을 받는 등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중간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에는 도내 평생 학습 공동체 총 58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24만4628명이 학습을 지원 받았다.

유형별로 41개 학교에서 2만2002명, 23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8만6552명, 166개 작은도서관에서 4만8922명, 11개 청소년시설에서 4429명, 5개 자립지원시설과 42개 다문화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2만277명 청소년이 배움교실을 이용했다.

도민 강사 양성 인원은 당초 목표 500명을 넘어 최종 511명을 기록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396명, 북부 지역에서 115명 강사가 활동 중이다. 총 3만3362회 강사 파견이 이뤄졌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4개 주요 교육 분야(미래교육, 문화예술, 인성코칭, 보충학습)에서 23개 세부 과정을 제공한다. 로봇과학, 인공지능, 피지컬 코딩 등으로 꾸려졌다. 교육과정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오



경기도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우쿠렐라 악기교실.

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열린다.

사업 운영 투명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12명 인력이 경기 북부와 격오지 포함 현장에서 모니터링 활동 중이다.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교육 성과를 홍보하고, 아동·청소년의 경험을 공유하는 메타버스 전시관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경기도 미래교육팀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지원사업이 많지만,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단기 수업이 아닌 10회차 이상으로 운영하는 장기 수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히포티앤씨·美 UNMC, 디지털 치료제 협약

디지털치료제 전문기업 히포티앤씨가 미국 네브라스카대학병원(UNMC)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히포티앤씨(대표 정태영)는 UNMC(총장 델리 데이비스)와 디지털치료제 공동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히포티앤씨에서 개발한 ADHD 진단치료제 AttnKare-D와 우울증 치료제 BlueKare의 현지화를 위한 마케팅 협력을 비롯해 정신장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치료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UNMC는 연간 예산 10억달러(1조 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주립학술건강과학센터다. 미국정부에서 폴브라이트 미국 학술 프로그램 최고 제작 기관으로 선정된 연구 중심의 대학병원으로서 미국 191개 의과대학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UNMC 정신건강의학과(학과장 하워드 리우)는 40여명 교원이 소아 청소년정신건강에 주력해 정신장애 환자들을 위한 진단과 치료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학과장 리우 교수는 6월 한국에 방문해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과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히포티앤씨는 업무협약을 통해 UNMC가 새로 건축하는 크리스탈빌딩에 입주해 대학으로부터 공간과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한미디지털치료제 공동연구센터(가칭)는 디지털치료제와 관련된 AI 기반 기초연구를 비롯해 현지 임상시험과 마케팅 등을 협력하게 된다.



정태영 히포티앤씨 대표(오른쪽)와 델리 데이비스 미국 네브라스카대학병원(UNMC) 총장이 디지털치료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NMC는 히포티앤씨와 2023년 ADHD 진단제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한국정부 국책 과제 일환으로 조울증 치료제를 함께 개발 중이다. UNMC 측 실무 담당자 황순조 교수는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미국정신건강연구소(NIMH)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미국 정부로부터 디지털치료제 연구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박사후연구원 1명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태영 대표는 “4년 간 개발한 의료 소프트웨어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면서 “디지털치료제는 이제 막 개화하는 혁신 분야로 누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지가 관건이며, 대학 명성에 매달리기보다 실질적으로 조력 가능한 파트너가 필요해 UNMC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현민기자 minkim@etnews.com